

1992 6

가정예배 안내서

충현의 만나

에베소서 1장 1절~6장 24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 552-8200

에베소서 서론

초대교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의견 대립으로 연합을 이루기가 매우 힘들었다. 바울은 이 소식을 감옥에서 듣고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참된 연합을 촉구하였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성도들을 하나되게 하는 것이며 이 진리를 떠나서는 참된 연합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각자가 주님의 부르심에 알맞는 생활을 하여 이 숭고한 연합을 이루라고 권하고 있다. 이 서신의 가장 큰 주제는 그의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며 완전케 하려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다. 이 주제를 발전시킴에 있어서 바울은 예정(1:3-14)과 몸의 머리되신 그리스도(1:22,23; 4:15,16),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교회(2:21,22), 그리스도의 비밀(3:1-21), 영적인 은사(4:7-16),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등의 문제를 다루었다. 전체 6장으로 구성된 이 편지는 각각 3장씩 나누어지고 있다. 1-3장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누구인가를 이야기 하고 있으며, 4-6장까지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있다.

6월의 기도제목

1. 당회장 신성종 목사님의 말씀의 능력과 목양
2. 김창인 원로목사님의 강건함과 사역
3. 부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의 헌신과 능력충만
4. 전교회의 뜨거운 기도운동
5. 전교구의 부흥과 배가성장
6. 교회학교의 질적 양적 성장
7. 총현의 온 가정에 성령충만
8. 민족통일을 위한 기도운동

1992 **6**

The Family Alter

가정예배 안내서

충현의 만나

에베소서 1장 1절~6장 24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 현 교 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 552-8200

1 (월) 은혜와 평강

찬송 410. 성경 엡 1:1-2

「은혜와 평강의 너희에게 있을지어다」(1:2)

자기 혼자 스스로 서서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몇 명 정도나 될까요?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롭게 설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성경은 말하기를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 갈 수 있는 비결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은혜가 없이는 한 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은혜는 라틴어로 그라치아라고 하는데 이 말은 “공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자격이 없지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는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평강은 외부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주어지든지 신경쓰지 않고 누리는 평안을 말합니다. 이러한 은혜와 평강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 * 스코틀랜드 그로스코 대학의 교수였던 윌리엄 버클리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텔레비전 강의를 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기 위해서 다른 모든 프로그램을 포기하였을 정도였습니다. 그 유명한 교수가 말하기를 에베소서는 서신 중의 여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데 이 서신의 중심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풍성함입니다. 이 에베소서의 말씀과 함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함을 체험함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합시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주시되」(1:3)

옛날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을 대단히 좋아하는 사람들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동양에 전통적으로 5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복을 추구하기 위해 종교를 택하기도 하고 미신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추구하고 있는 모든 복은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 너무 현세적인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는 영원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곧 영생을 소유하는 복입니다(시 133:3). 이 복을 소유한 사람은 현실의 벽을 보지 않고 항상 푸른 초장에서 설만한 물가에서 지낼 수 있게 됩니다. 이 복은 땅에 속해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성도들에게 주시는 목적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도로 하여금 거룩하게 되어 흠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 * *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합하게 사용되는 것들은 아름답습니다.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은 다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한 가지로 결정되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심은 바로 이런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복을 받기만 추구하는 사람보다는 주시는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기도 오늘도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원로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남은 사역에 풍성함을 주옵소서.

3 (수)하나님의 기업

찬송 492, 성경 엡 1:7-14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1:11)

어느날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유명한 사람이 지니고 있는 소유물을 경매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물건들은 새것이 아니었지만 비싸게 팔렸습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그 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물건의 가치는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한번 주어진 인생이지만 그 소유주가 바로 세상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지요 우리는 그의 기업이 되었다는 사실에서 그만큼 더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일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그의 기업이 되었으므로 그 기업의 풍성함 속에 참여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이 되기 위한 우리의 사역이 있음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리고 인생관을 알리고 우주관을 알리고 행동 원리를 알리는 말씀을 바로 들어야 합니다. 또한 믿어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 * 미국의 영주권은 유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살면서 공직에 종사하려고 하는 자는 그 영주권이 소용이 없습니다. 한국의 시민권이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는 땅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에 땅의 시민권을 중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업은 하늘의 시민권을 중시합니다. 땅의 시민권만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제구실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기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임을 자각하고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맡기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욱 주옵소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말하노라」(1:16)

로버트 부카난은 칼그림자란 책에서 증오의 교회당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당은 쓸쓸한 황야에 서 있는데 하나님께가 아닌 증오의 신에게 드려졌다고 합니다. 쓰라림과 고통을 당하는 모든 사람이 이 곳에 와서 그들을 괴롭히는 원수를 저주하는 기도를 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바른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을 비난하는 말입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들으시면서 응답하는 기도가 되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있으며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받으시며 아울러 풍성한 가운데 응답을 해 주십니다. 이런 기도를 대표적으로 잘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는 성도를 사랑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기주의적 기도는 초보적 단계입니다. 보다 성숙한 기도는 이타주의적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 • 우리는 남을 증오하기에는 충분한 신앙을 가졌지만 아직 서로 사랑하기에는 충분한 신앙을 못가진 것 같습니다. 사랑을 갖되 보다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되 특히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을 위하는 기도는 아름다운 기도가 될 것이며 이런 기도는 능력을 소유한 살아 있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런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5 (금)은혜로 얻은 구원

찬송 410, 성경 엮 2:1-5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1:5)

내 힘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도와준다고 나서면 그것은 은혜스러운 일이 아니라 번거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어느 막강한 힘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감사를 돌릴 일이 될 것입니다. 인간의 사고의 향상으로 되어지는 기술의 발달이나 과학의 발달은 인간으로 하여금 갈수록 편리하게 만들지만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구원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문제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을 향한 순결을 잃고 이상을 잃고 의지를 잃었습니다. 세상의 풍속을 좇으며 마귀의 지시에 따라 육체의 요구를 따라다녔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 * * 1·4후퇴 당시에 아들을 데리고 피난오던 사람이 많은 인파에 휩싸여서 아들이 기차길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얼른 달려들어 아들을 구하려다가 그만 자신의 팔이 잘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40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잘린 팔을 볼 때마다 자신의 생명의 존귀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위에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은혜로 주어진 구원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2:5)

시대가 영웅을 만드는 것인지 영웅이 시대를 만드는 것인지는 영원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에게 자리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그 자리에 맞는 책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과거의 우리의 자리는 죄로 인해 이미 죽었던 자의 자리였으므로 악하고 추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어 영광스런 천국 백성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든지 문제가 되지 않고 이제부터는 이 자리에 맞는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부닥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리는 구원의 자리로써 하늘의 자리지만 지금 몸을 담고 있는 것은 세상이라고 하는 한계성입니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다고 하는 핑계를 대고는 합니다.

- * * 이조 말기의 왕이었던 철종은 왕이 되기 이전에는 강화 도령으로서의 삶을 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후에는 왕으로서의 자리를 지키며 위엄 있게 처신을 해야만 했습니다. 과거의 우리가 최악의 구덩이에 있을 때의 모습이 좋다고 계속해서 그 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당당한 모습으로 세상을 정복하여 살아야 할 것입니다.

7 (주일) 생각하는 삶

찬송 85, 성경 엮 2:11-13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와졌느니라」(2:13)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이 있다면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선불리 하는 행동은 타인의 지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생각한다 하더라도 어디에 기준을 두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생각할 때에 비로소 바른 행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생각하라는 말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되 먼저 우리가 어디에 서 있었으며 지금은 어디에 서 있는 존재들인가를 생각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디에 서 있었으며 지금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과거의 삶은 어떠했으며 지금의 삶은 어떠합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과거의 우리의 삶은 비참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존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 * *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상은 약하기로 말하면 그지없이 약한 존재입니다. 호머가 말했듯이 인간은 무기력한 삶이요 죽음을 면할 수도 없으며 늙는 것을 막을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혼자서는 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과거에는 죽었던 우리들을 구속하셔서 하나님과 연결시켜 풍요로운 참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항상 생각하며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기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을 생각하며 사는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소서. 참된 예배를 드리므로 우리의 심령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하시고」(2:15)

동독과 서독을 가로지르는 장벽은 무너트리기 어려운 철의 장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튼튼한 장벽도 통일이라는 힘에 의해서 힘 없이 무너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벽을 무너트린 인간의 힘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힘은 참으로 편리하고 좋은 것임에는 분명합니다. 군사의 힘은 나라를 지켜주며 경제의 힘은 사람을 편리하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말할 수 없는 높은 장벽이 있었습니다. 이 장벽을 무너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유지하는 데는 힘이 필요했습니다. 이 힘을 소유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용하신 힘은 물리적인 힘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값없이 버리시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이에 있었던 장벽을 무너트리셨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과 인간은 한 울타리 안에서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뿐만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끼리의 장벽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 * *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장벽은 자기 주장을 고수하는 교만한 인간들의 죄 때문에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벽이라고 할찌라도 예수님의 사랑은 이것을 부수고 뛰어 넘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장벽을 부숨으로 이제는 외인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자유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순 장벽을 우리의 죄로 다시 세우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2: 22)

우리의 몸은 단순한 인간의 육체만이 아니라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전이라고 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전의 특징은 자기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합하여 한 지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집 하나를 짓기 위해서 많은 종류의 자료가 사용되는 결국은 집 한 채를 짓듯이 성령의 전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되어 지어지는 거룩한 집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 되게 하신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단순한 여행자와 같은 외인도 아니고 아직은 정착하지 못한 그러나 함께 살고 있는 사람과 같은 손도 아니고 한 가족으로서 비밀과 특권을 서로 나눌 수 있는 동일한 시민으로 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집의 기초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도들이 터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또한 이 집을 지을 때는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초점으로 해서 유기적 연합체로써 땀해야 땀 수 없는 관계로 서로 연결해 나가야 합니다.

- * *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산 돌이라고 했습니다. 산 돌의 특징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완전을 향한 계속적인 성장이 있는 자만이 함께 성전을 지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 완성되어진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함께라고 하는 것은 단독이 아닌 협력입니다. 오늘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관계 속에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는 몇 장의 벽돌을 쌓아 올릴 수 있을까요?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3:7)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적당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적당한 자격이라고 함은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 달란트에 첨가되는 고도의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훈련이 더욱 더 잘 되기 위해서는 본인의 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이 다 조화가 되었을 때 훌륭한 일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방법론적인 면에서 되어진 일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바울에게도 다른 모든 자력이 갖추어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만은 바울은 그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가장 큰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는 자격도 중요하고 재능도 중요하고 열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 하나님이 일꾼이 된다는 것은 하나의 인본주의적 발산일 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을 만듭니다.

- * 크리스토퍼 우렌 경이 성 바울 성당을 지을 때 현장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냐고 물었습니다. 그 때 사람들은 각기 달리 대답했습니다. 어떤 이는 돌을 깎고 있다고, 어떤 이는 돈을 벌고 있다고, 어떤 이는 크리스토퍼 우렌 경을 도와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그 목적이 다릅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진 일꾼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하나님의 일꾼인가요? 아니면 나를 위한 일꾼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꾼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 은혜로 되어진 하나님의 일꾼임을 기억하여 오늘도 은혜에 감사하며 충성하게 하옵소서. 각교구가 배가전도운동이 활성화되고 부흥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3:8)

일꾼은 분명한 목적의 성취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일꾼의 사명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취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꾼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그 사명입니다. 그 사명이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은 우리가 깨달은 후에 누리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라고 하는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되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해야 하며 비밀의 경륜의 드러난 것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일꾼은 마땅히 종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종의 자세는 섬기는 자세입니다. 또한 겸손이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토스카니니는 베에토벤 곡을 연주할 때 자신의 기량을 높이지 않고 베에토벤을 높였다고 합니다. 그럴 때 그는 더욱 더 훌륭한 연주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높이며 자신을 낮출 때 예수의 복음은 더욱 더 효과적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 * *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무한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실현하는데는 반드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 PARA CHURCH라고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구제도, 역사의 흐름도, 복음도 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만물보다 부패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역사적 사명을 지닌 하나님의 일꾼임을 날마다 상고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3:13)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고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도 인정을 해 줄 때는 일을 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도 힘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실력도 있고 자신감도 있는데 돌아 오는 반응은 항상 반대와 꺾박이라면 그것은 그리 쉬운 일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는 자들을 많이 생기게 됩니다. 복음적으로 살며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중도에 되돌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므로 낙심하여 복음 전하는 일을 버리고 고기를 잡으려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그는 비록 고난을 당하나 오히려 담대했으며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오히려 더 즐거워하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력을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당당히 나갈 수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확신은 모든 낙심을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 • 인간적인 계산에 의해서 생기는 만족도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고난이 있다고 해서 낙심할 하등의 이유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땅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의 선물과 비례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족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13 (토)충만한 생활

찬송 173, 성경 엮 3:14-19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3:19)

빈 깡통은 소리가 요란할 뿐만 아니라 쉽게 찌그러집니다. 사람도 속이 빈 사람이 시끄러우며 쉽게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속이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지식으로 가득찬 사람은 지성의 미를 풍길 수가 있을 것이며 교양으로 가득찬 사람은 교양의 미를 풍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이 세상에 속한 것들로 그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라면 마땅히 그 이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주님의 성전이라 했으므로 주님의 성전에는 주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리스도께서 마음을 주관하는 생활을 하게 되며 그 결과로 풍성한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인간 이성의 판단을 버리게 되며 양심이 변화를 받게 되며 의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피조물다운 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 * * 바울 사도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풍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유한한 인간의 그릇은 하나님의 무한을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담을 뿐만 아니라 나누어 주기를 구했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성도를 향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은 무엇으로 채우기 위한 분주함입니까? 성령의 충만을 위해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는 분주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3:21)

헤롯 왕은 유대인의 인심을 사기 위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특히 그는 46년에 걸쳐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데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일은 아니라 유대인의 관심을 끌어서 자신의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의 손자 헤롯 아그립바는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할 때 그가 연설을 잘했으므로 백성들은 그를 향해 신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그 때 그는 그러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므로 즉석에서 충이 먹어 죽었습니다(행12:23). 하나님은 모든 영광이 당신께 향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도록 하신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져야 마땅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이것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가 고난을 당하는 것도, 칭찬을 듣는 것도 모두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리기를 힘쓰는 생활을 했습니다.

- * *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무진합니다. 또한 영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무궁무진해야 하며 영원토록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며 모든 영광을 그에게 돌리는 일에 있어서 더욱 더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는 목적은 우리의 치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는데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입니다.(갈2:20)

15 (월)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

찬송 318, 성경 엡 4:1-6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4:1)

사람에게는 주어진 신분이 있습니다. 이 신분에 못미치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는 부족하여 지탄을 받는 사람이 되고 지나친 행동을 했을 때에는 비난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자기의 신분을 바로 알고 바로 사는 것은 합당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부르신 후에 그 부르심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도록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도의 합당한 생활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모든 겸손입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모든 사람의 마음은 겸손한 곳으로 흘러야 합니다. 진정한 겸손은 예수님 옆에 자신을 갖다 두는 것입니다. 둘째는 온유입니다. 부드러워야 합니다. 강한 것은 좋으나 부러지기 쉽습니다. 셋째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인내 속의 용서는 성도를 하나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넷째는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행동들입니다.

* * 태풍이 지나간 후에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커다란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 나무는 강한 것 같았으나 모진 비바람을 견디지 못해서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있는 부드러운 풀들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자신의 유연함 때문에 폭풍우를 견딜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강했으나 부드러운 분이셨습니다. 겸손과 온유와 인내의 용납과 하나님 안에서의 일치와 화목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내게 이 부름에 합당한 생활이 있는가요?

기도 남을 용납하며 성령 안에서 일치를 힘쓰게 하옵소서. 북한선교에 더욱 큰 열매가 맺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4:7)

사람마다 열심히 일해서 받은 대가에 대해서는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저 받은 선물에 대해서는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아울러 충성스럽게 여겨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직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물을 각 사람에게 각자의 분량을 따라 알맞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을 전하는 자요, 목사와 교사라고 하는 직분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이들은 무슨 특권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때를 얻든지 못얻든지 항상 전했습니다. 이 직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므로 이 선물이 고마워서 열심히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직분자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온전케 되기를 원하며, 모두가 봉사의 일을 하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더욱 더 고마운 것은 이 직분을 충성스러이 수행할 수 있도록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 •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느냐가 아니라 지금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느냐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맡았던 자가 주님께 꾸중을 들은 것은 그가 한 달란트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도 열심히 일해서 한 달란트를 남겼다면 다섯 달란트 남긴 사람과 같은 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리가 아니 그가 하는 일입니다. 지금 나의 자리는 무엇이며 무엇을 남기고 있습니까?

17(수) 직분자의 영적 성숙

찬송 456. 성경 엡 4:13-16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4:13)

사람은 세 가지가 성장해야 합니다. 첫째는 육적인 성장입니다. 육체적으로 골고루 성장하지 못하면 기형아가 됩니다. 둘째는 정신적인 성장입니다. 정신적 성장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정신장애아가 됩니다. 셋째는 영적인 성장입니다. 영적 성장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지 못합니다. 육체적인 성장과 영적 성장은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성장은 그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데 우리는 일생을 다하여 성장해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의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성장만 있을 뿐입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 성숙이 필요한 이유는 요동치 않기 위함에 있습니다. 세상은 혼란하여 여러 가지 풍조가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사람의 꾀술과 간사한 유혹은 성도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세상 풍조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성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 영적 성숙의 도달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곳입니다. 이 곳에 이르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끊임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목표가 수단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목표와 과정이 다 좋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참된 것을 추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각 지체의 할 일을 하되 각 마디가 연락하고 상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겸손히 계속 배워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향한 나의 성장은 얼마나 이루어질까요?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4:17)

경기장에서 운동하는 선수는 경기를 하는데 있어서 거추장스러운 옷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를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자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고전9:24).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모두 신앙의 경주자입니다. 그러므로 경주를 하는데 있어서 거추장스러운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경기를 하는데 있어서 벗어버릴 것들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총명의 어두움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둘째는 무지함입니다. 셋째는 굳은 마음입니다. 길가와 같은 굳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넷째는 감각 없음입니다. 화인 맞은 양심입니다 (딤후4:2). 다섯째는 방탕에 방임하는 마음입니다. 탐욕에 눈이 어두워져 무모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물염치하며 육신의 욕심만 추구합니다. 그 결과는 폼페이의 최후의 모습과 같을 것입니다. 여섯째는 더러운 욕심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의 것이므로 하나님 안에서 신앙 경주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불필요한 옷들입니다.

- * * 이것은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전에는 귀중하게 여기던 것들을 이제는 배설물 처럼 여길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고 했습니다(빌 3:8). 배설물은 빨리 버릴 수록 깨끗합니다. 내가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배설물은 무엇인가요? 나의 신앙을 방해하는 배설물은 무엇인가요? 과감히 버리는 자에게 은혜가 있게 됩니다.

19 (금)입어야 할 것들

찬송 87, 성경 엡 4:21-24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4:24)

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성격을 대변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는 그 사람의 옷을 보아서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신분이나 분위기에 맞는 옷을 입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과거에 입었던 죄로 찌든 더러운 옷을 다 벗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성도의 신분에 맞는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합니다. 진리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것은 곧 심령으로 새롭게 지어진 옷을 말합니다. 새로 창조되어진 옷은 아니지만 과거의 것으로부터 구분되어지는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의 옷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사이에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유적 속성이라는 것과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비 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은 공유적 속성을 추구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은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가지고 있는 공유적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땅히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 * * 귀신을 쫓아낸 후에 그 집을 깨끗이 청소를 한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마12:43-45). 처음에는 귀신을 쉽게 물리치고 청소를 하였으나 그 안에 새로운 것을 채우지 아니하였기에 더 많은 귀신이 들어와서 전 보다 더 형편을 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죄로 물든 더러운 옷들을 벗는 것은 좋으나 새로운 옷을 입지 않으면 그 모습은 별거벗은 초라하고 창피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 추한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좋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4:29)

만물의 근원이 무엇이나는 질문에 어떤 사람은 물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불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공기라 하고, 어떤 사람은 흙이라 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대답하기를 만물의 근원은 말(언어)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 말씀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시33:6).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했습니다(요1:4). 말의 힘은 참으로 큼니다.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어 하나까지도 사용하는데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도들이 사용해야 하는 언어는 남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참된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참된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거짓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분에 지나친 언어도 금해야 합니다. 분에 넘친 나머지 죄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더러운 말을 버려야 합니다. 욕설이나 음담패설은 성도에게 합당한 언어가 아닙니다. 성도는 오직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말을 할 때에 본인은 물론이요, 불신자들에게도 은혜를 끼치게 됩니다.

- * * 야고보 사도는 이르기를 작은 키를 가지고 큰 배를 움직이듯이 사람의 혀는 작은 것이로되 사람을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부질 없는 말은 실수를 만듭니다. 그러나 실수를 안하려고 침묵한다 해도 안됩니다. 안드레 모로아는 침묵의 거짓은 헐박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침묵을 통해서 또 다른 죄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말을 해야 합니다. 말을 하되 덕을 끼치는 은혜스러운 말을 해야 합니다.

기도 남에게 덕을 끼치는 은혜스러운 말을 하며 살게 하옵소서. 박행렬 장무용 선교사(서사모아)의 사역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하소서.

21 (주일) 위대한 용서

찬송 487, 성경 엡 4:30-32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4:32)

남이 나에게 해 주는 것 만큼 나도 남에게 해 주기란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돌아 오는 것은 없는데 무한정 주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악을 행하는 상대를 향해서 선을 행하기란 더욱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갚는 이런 용서가 있는 생활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죄로 인해 결렬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개선하시고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보여 주셨습니다. 이런 용서를 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용서를 요구하십니다. 아울러서 이런 용서를 하지 못하면 성령께서 근심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용서를 하는 사람은 마땅히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훼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를 다 버려야 하며 인자함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해야 합니다. 그때에 성령님께서 기뻐하십니다.

- * * 하멜만이라는 사람은 지스로우 가들로스키라는 괴한에 의해서 일가족 9명이 죽임을 당할 때 총에 맞았으나 중상을 입고 간신히 살아 남게 되었습니다. 그 후 20년이 지난 후 살인범이 석방되려 하나 후견인이 없어서 석방되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이 보증을 서고 그 사람을 석방하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때 그는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저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라고 했습니다. 위대한 용서는 예수님의 용서를 따르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5:1)

이미 닦여 있는 좋은 길을 놔두고 가시밭 길을 헤치면서 지나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길은 그것을 잘 활용하여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우리가 닦을 수 없는 어려운 길을 미리 닦아 놓게 하시기 위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닦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드리셨던 제물은 반드시 피를 흘려야 하고 그 몸을 찢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하나님께 향내나는 예물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을 찢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좋은 길을 닦아 놓으신 예수님의 방법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랑을 본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받는다는 것은 모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한 명령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 * * 토마스 아퀴나스의 명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은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그 속에는 보다 더 훌륭한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한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생활은 자기의 독창력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행적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말하기를 현명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되는 훈련을 쌓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이 되는 훈련을 충실히 쌓은 하루를 보내야 합니다.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5:3)

회개라는 말의 헬라어는 「메타노이아」입니다. 이 말은 「후에」라는 말과 「돌이키다」는 두 말이 합해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란 나중에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이요, 한번 돌이키면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회개한 행동에 대해서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한 행동을 다시 하는 일은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은 더러운 일입니다. 회개한 후에는 과거의 것에 대해서 이름도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음행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당시 헬라 사람들의 윤리 개념은 타락하기 이루 말할 데 없었습니다. 윤리적인 음행도 물론 이거니와 영적인 간음은 하나님 앞에 더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 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은 곧 영적 간음이 됩니다. 더러운 탐욕도 버려야 합니다. 욕심은 끝이 없는 것이므로 도에 지나치게 이기심을 가지면 추하게 됩니다.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도 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언들은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힐뿐 아니라 기독교인의 명예를 실추시킵니다. 이것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 *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은 조급하게 움직이며 자기 중심적인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웃을 위함보다도 자기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며 타인에 대해서는 혹독한 판단을 합니다. 또한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는 향락 문화를 행합니다. 그럼에도 그런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고 오히려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도는 여기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 이름도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유업으로 있게 될 것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5:9)

꽃의 목적이 사람에게 아름다움을 주는 것이라면 유실수는 열매를 주는데 있습니다. 나무도 크고 잎도 무성한 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것은 유실수로써의 구실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신앙은 열매를 맺는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구하는 것이 신앙의 열매입니다. 열매는 나무의 모든 영양분이 모여 뭉쳐져서 만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열매는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생을 통해 생활 속에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신앙의 열매는 빛의 자녀들 처럼 행하는 데서 맺어집니다. 이것이 성도의 빛의 열매입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관대하고 온유하며, 부정을 용납하지 아니하며, 인간에 대한 의무를 다하며, 도덕적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빛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헛된 말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는 가라워져 볼 수 없었으나 이제는 빛으로 나왔기 때문에 거짓과 진실을 구분해서 빛의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해야합니다.

- * * 세상은 성도를 유혹하여 죄에 빠지게 할 때 달콤한 말로 다가옵니다. 에베소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육신은 죄를 지어도 영은 죄를 짓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죄를 덮기에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럴듯한 달콤한 말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달콤한 말로 속삭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다 덮어주니 부담 없이 살자고 말입니다.

25 (목) 빛으로 나타납시다

찬송 259, 성경 엡 5:10-14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5:14)

어두울 때 필요한 것은 빛입니다. 어두움이 짙으면 짙을수록 더 강한 빛이 필요합니다. 또한 어두움이 짙으면 짙을수록 빛은 더욱 더 밝게 빛납니다. 지금 시대는 어두움의 시대이기에 빛이 필요합니다. 과거보다 더 어두워졌기에 더 강한 빛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한 빛이 도처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같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학계에서나 예술계에서나 체육계에서나 빛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인에게 큰 책임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독교인이 그만큼 진리의 빛을 비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대가 어두움을 향해 내리막길 할 때마다 성도들에게 그 책임을 더 가증하여 물으십니다. 그래서 명하시기를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하십니다. 빛을 비춘다는 것은 어둠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책망은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책망하기 위해서는 일어나야 합니다. 같이 죄의 자리에 있으면 어두움을 책망할 수 없습니다. 성도가 바로 서 있으면서 죄를 책망할 때에 어두움이 빛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 * *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의 빛을 비출 수 없습니다. 다만 빛을 확실히 비추기 위해서는 확실한 빛을 받아야 합니다.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 빛이요 진리이십니다. 그러므로 빛으로 나타나기를 희망하는 자마다 이 예수의 빛을 소유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빛을 소유하기를 명하시며 아울러 이 빛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빛의 사자들입니다.

기도 빛의 사자가 행위의 나약함으로 빛을 감추지 않게 하옵소서. 총현의 각지교회에서 사역하는 교역자들의 가정을 지켜 주시고 사역위해 축복 하소서.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5:15, 16)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서 정보화시대라고 합니다. 정보화시대에 필요한 것은 수 많은 정보 지식입니다. 정보 지식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좌우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승리하기 위해서 더 많은 정보 지식을 소유하려고 동분서주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지혜입니다. 지혜는 단순히 습득해서 쌓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무던한 노력과 함께 살아 가는 과정입니다. 살아가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몇 가지의 구별된 행동을 합니다.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며 삽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여 선을 따릅니다. 악한 세상에서 세월을 아끼며 규모 있게 삽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합니다. 육신의 쾌락을 좇는 술취함의 생활에서 이제 성령 충만의 영적 생활로 바꿉니다. 신령한 노래로 항상 찬송을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어진 말씀에 따라 철저히 복종하며 삽니다.

- * * 세상 사람들은 물질과 명예의 추구를 위해서 수 많은 정보 지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무엇 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해야 합니다. 평상시에는 누가 지혜를 집을 지었는지 구분할 수가 없으나 비가 오고 바람이 불 때 지혜로 지은 사람의 집은 굳건히 드러나게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사는 사람만이 지혜의 집을 지으며 지혜의 꿀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바람 불 날은 꼭 있습니다.

기도 진정한 지혜이신 예수님을 따르며 세월을 규모있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에게 항상 능력을 주옵소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5:32)

예수님은 평상시에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는 그것은 쉽게 설명할 수 있으면서도 그 의미를 바로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설명하기 힘든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부부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합니다. 범사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억지가 아닌 자발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제 몸을 사랑하듯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해야 합니다. 폭력이 아닌 희생의 사랑을 해야 합니다. 희생적인 사랑, 깨끗한 사랑, 돌봐주는 사랑, 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연합입니다.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하나이기 때문에 뗄레야 뗄 수 없는 동일체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바로 이렇습니다. 물로 씻어 정결케 하듯이 값진 피로 사서 씻은 몸된 교회와 예수는 이제는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우리는 신랑되신 예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 * * 비밀이란 외인에게는 감추어진 것이지만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전에는 감추어져 있던 것이 이제는 확실하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비밀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크도다 이 비밀이여, 이 비밀을 아는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하지 말라」(6:7)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비가 오면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비록 힘이들기는 하지만 튼튼한 기초 위에 세운 집만이 폭풍우를 견딜 수 있습니다. 나라가 바로 서고 사회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것들이 기초가 바로 서야 합니다. 그 기초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모든 모임의 기초가 됩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바로 선 교회, 국가, 사회는 안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중심 역할을 기독교 가정이 해야 합니다. 기독교 가정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함과 공경함에 있습니다. 이것은 억지가 아닌 자발적인 순종이어야 하며 속에서 우러나오는 공경이어야 합니다. 이로써 하나님 섬기기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권위주의로 하지 않고 권위로 해야 하되 자기 권위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로 해야 합니다. 과잉보호 보다는 독립심을, 한 시대의 관습보다는 현실을, 꾸중보다는 격려를, 편애 보다는 넓은 사랑을, 불가능보다는 가능성을, 소홀보다는 관심을, 무분별한 사랑보다는 채찍을, 무엇보다 하나님 섬기는 신앙을 주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 * * 성도의 길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자식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보다는 오직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야 합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집니다. 끊임 없는 훈련으로 만들어집니다. 헤엄치는 법을 배우기 전에는 물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기 보다는 헤엄치는 법을 가르치며, 물고기를 잡아 주기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부모가 될 때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29 (월)영전을 준비하라

찬송 393, 성경 엡 6:10-20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6:11)

군인이 전쟁에 나갈 때면 필요한 무기들을 준비합니다. 준비되어진 모든 무기를 몸에 지닐 때 불편하고 무겁기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싫어도 갖추어야 할 장비들입니다. 신앙 생활은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비록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 불편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갖추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마귀에게 지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입어야 할 전신갑주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실한 생활을 말합니다. 의의 흉배를 입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헌신적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합니다. 전도를 말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지녀야 합니다. 세상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소망을 말합니다. 성령의 겹을 가져야 합니다. 비로소 마귀를 쓰러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와 간구가 있어야 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닌 타인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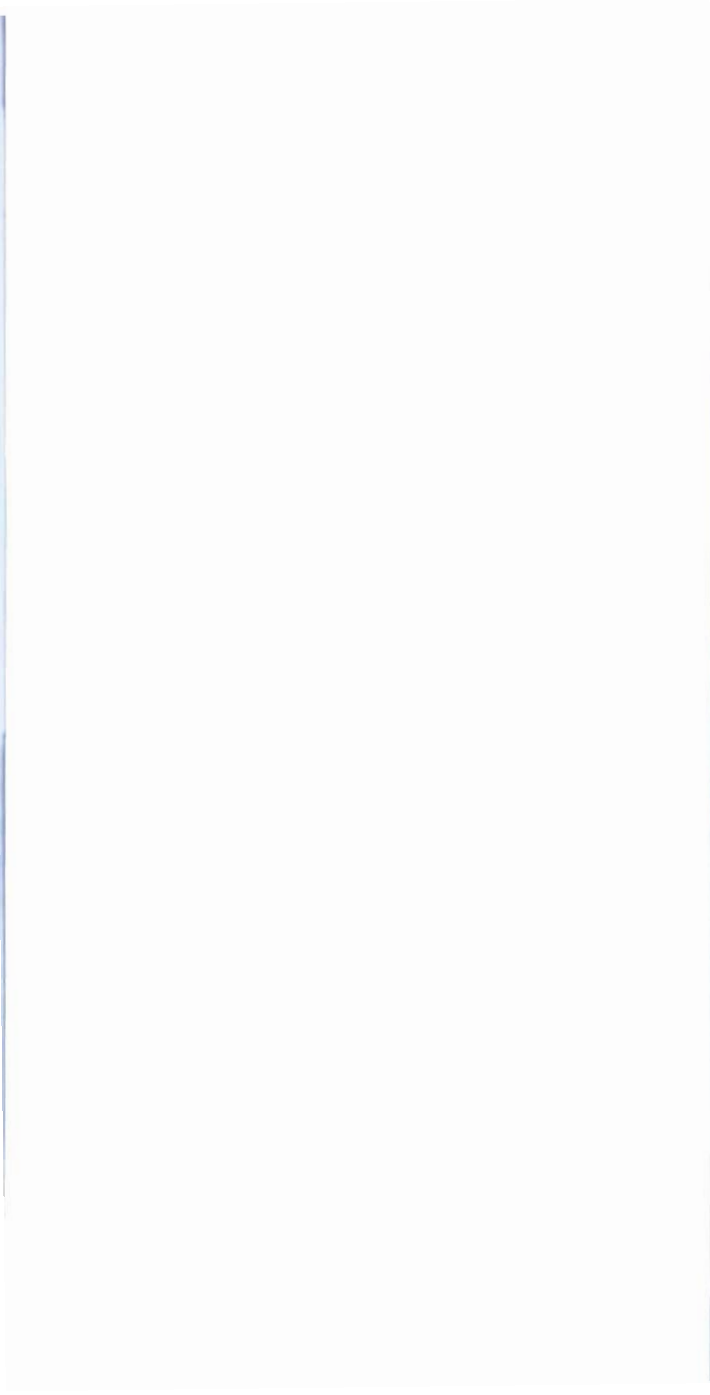
- * * 로마의 군인이 적은 숫자를 가지고서도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쟁하기에 편리한 그리브스라고 하는 그들의 복장에도 있었지만 그들은 다른 군인들과 달리 편리한 신발을 신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 생활을 하는 동안 끊임 없는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신을 신고 말씀의 칼을 들되 죄사슬에 매이면서도 수치를 기쁨으로 여기며 담대함을 잃지 않았던 사도 바울과 같이 살 때에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는 신앙의 용사들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 영전을 위해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나라 정치, 경제, 문화 모든면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 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찌어다」(6:24)

대부분의 경우 평안한 형편에 있는 사람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 위로를 합니다. 그러한 위로는 낭패에 처한 사람에게 약간의 위로를 더하여 줍니다. 그러나 어려운 형편에 있었던 사람이 자기의 경험과 함께 하는 위로라면 당사자에게 더 큰 위로를 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오히려 평안한 사람을 찾아와서 위로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바울은 비록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신을 염려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염려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위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성도들이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구했습니다. 성도들이 주님으로부터 평안을 얻어 제자들 간의 조화를 이루기를 원했으며 믿음이 겸하여진 사랑을 소유하게 하기 위하여 간구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는 것은 상대적인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믿음의 사랑만이 옳바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당신을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 * * 예수님을 알기 전의 사도 바울은 못난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사도가 된 후에 고백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 은혜가 고마워서 그는 일평생 주를 위한 헌신을 다했습니다. 웅덩이에 고인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모든 자에게 베풀어야 할 은혜를 우리만 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은혜 때문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베풀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예배 안내

예배순서

- 1) 찬 송 ... 다같이
- 2) 성경봉독 ... 사회자
- 3) 메시지 낭독
- 4) 기 도 ... 그날의 기도와 그달의 기도
- 5) 주 기 도 ... 다같이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찬송과 성경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